

“가능성 있는 한계기업, 부실 심화 전 지원절차 마련해야”

중소 구조개선 촉진 토론회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 법원의 회생절차 외에 제3자가 나서서 사적 구조조정제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재무환경이 전반적으로 나빠져 경영 정상화, 기업 회생, 사업전환, 폐업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 활용률이 매우 낮고, 법정관리로도 불리는 회생절차는 법원이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낙인효과’ 등 제도적 한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촉법상 워크아웃은 채무자(기업)가 배제된채 금융기관(채권자)이 주도한다는 면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고 법적 강제력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되지만 회생절차 신청 이후 낙인효과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 기존 거래관계 단절 등 기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 6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서강대 임재운 명예교수,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김도성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팬데믹에 중소기업 재무환경 전반 악화 경영정상화·회생 등 위한 제도 절실

“日 제3자기관 중소기업 활성화 협 처럼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적 필요”

“채무·채권자 입장 공정하게 고려 정부 주도의 제3자 필요한 시점”

업 회생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연구위원은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회’를 예로 들었다.

최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제3자기관이 주도하는 여러 사적 정리절차 중 하나인 중소기업활성화협회의는 중립적 입장에서 채무조정과 중소기업 재정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활용성이 매우 높다”면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기업의 부채를 탕감

하기위해 입은 손실에 대해선 세금 공제가 가능하고, 관련 협의회 참여기업은 기관 대출을 통해 우대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회생이 예상되는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장비, 자금, 운전자금 등도 더욱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조발제 후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소기업정책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재운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우선 10월에 끝나는 기촉법의 일몰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금융포럼 위원장인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은 어떤 천재지변보다 심각한 영향을 준 만큼 더욱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유동성

은 부족해도 영업활동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기업은 선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이 심화되기 전 선제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이 아이디어로 제시한 사적 구조조정제도 추가 마련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했다.

법제연구원 김윤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활성화협회를 규정하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중소기업과 함께 뛰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동반자며 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아우른다. 또 정상화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망한 다음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 악화된 경영상태가 과잉채무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법에 다 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이와 관련한 아무런 기관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성장보다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의 회생절차가 있지만 새로운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부장관사 출신의 전대규 변호사는 “기촉법 일몰 연장도, 제3자 방식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서 “IMF 등을 거치면서 대기업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끝냈다. 이전 중소기업만 남았다. 시간이 걸리는 법제화보다는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복합경제 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한계기업도 늘고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명박, 中 中企 CEO에 경제활력 희망 전한다

〈前 대통령〉

제주서 中企 리더스포럼 기조강연 업종별·지역별 대표 400여명 참가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강연을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간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가하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16회째인 올해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기조연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맡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인 2010년 9월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하나로 동반성장위원회 회를 구성해 운영기로 결정하고 그해 12월 정식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뜻을 올린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협력을 도출하는 민간 위원회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었다.

이와 함께 올해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이란 주제로 특별강연도 한다.

이외에 나흘간의 포럼에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김광석 한양대 교수의 ‘2024년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함께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은 문화심리학자 ▲신의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이번 포럼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과 더불어 지역 수산물 구매 등 지역경제 살리기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롯데백화점 확장·리뉴얼 오픈

매장 2배 확장... 체험침대 수 늘려

시몬스가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8층에 ‘시몬스 롯데백화점 본점’을 새단장하고 확장해 문을 열었다.

11일 시몬스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을 통해 매장 규모는 기존 대비 2배 가량 넓어졌고, 체험 가능한 침대 수도 대폭 늘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매장에는 우드톤의 인테리어를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고급 침대 수요에 발맞춰 전국 롯데백화점 중 최초로 시몬스 침대의 최상위 라인인 ‘뷰티레스트블랙(Beautyrest BLA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선 시몬스 매장 전경.

CK)’ 존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기서는 뷰티레스트 블랙의 최고가 모델인 ‘켈리(Kelly)’를 비롯해 ‘데보라(Deborah)’, ‘루실(Lucile)’, ‘로렌(Loren)’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오잇,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출시

모과청·푸룬청·매실청 3종 선택

휴롬의 휴롬에프엔비가 새로운 식품 브랜드 ‘휴롬오잇(HUROM Oit)’을 통해 배도라지 과일청 스틱 3종을 출시했다.

11일 휴롬에 따르면 휴롬에프엔비 휴롬오잇은 기존 영유아 대상의 ‘휴롬키즈’ 브랜드에서 확장해 전 연령대를 대

상으로 채소, 과일의 영양을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한 건강하고 트렌디한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다.

배도라지 과일청은 배도라지 모과청, 배도라지 푸룬청, 배도라지 매실청 3종으로, 국산 도라지 추출액 75%, 나주 배 12% 이상을 함유했다. 설탕이나 감미료 등 첨가물 없이 국산 사양별골

로 건강한 단맛을 내고 한 포당 8kcal로 기존 제품 대비 칼로리 부담을 확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스틱 형태여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한국기능연구식품원의 테스트 결과 면역력 강화 및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조사포닌 성분이 스틱 한 포에 11.6mg 함유돼 있어 호흡기 건강은 물론, 감기와 변비 예방, 위장기능 강화 등 각 과일별 효능을 더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 中企 추석 자금난 해소 7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석 명절 전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9~10월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신청 절차와 비대면 상담, 전자약정 등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9월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울과 지방은 11~12일, 인천·경기지역은 13~14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추석 전후로 유동성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